

단보 비판적 공간환경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 진보적 지역발전론의 과거, 현재, 미래

Progressive research in regional development: Past, present and future

손정원\*

신지역주의 경제지리학이 비판적 지역연구를 주도하던 시대가 2010년을 전후하여 끝난 후, 영어권의 지역발전론에서 뚜렷한 진보적인 이론적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진보적 지역경제 연구자들은 과거와 같이 수입된 이론을 한국에 변형, 적용하는 방식의 연구를 계속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한국의 지역경제 연구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지금처럼 영어권의 논의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좀 더 차별하게 한국의 연구자들끼리 소통하면서 한국의 지역경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향후 비판적 지역경제 연구를 위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한다.

**주요어:** 지역발전론, 한국적 이론, 신지역주의, 지역균형

\* 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부교수(j.sonnn@ucl.ac.uk)



## 1. 과거: 이론적 진보의 약화

한국의 진보적 지역개발 연구는 한편에서는 영미권 진보적 지역개발 논의에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의 사회정치적 분위기, 학술 연구경향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80년대에 지리학과, 지역개발학과, 도시계획학과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연구경향이 형성되어, 공간환경학회 등을 통하여 가치의 지리적 이전, 대기업 내부조직(강현수, 1991), 하청관계(변창흠, 1991), 불균형발전 지향의 국토계획/기반시설투자(변창흠, 2000), 탈공간적 경제계획이 지역격차를 만들어 내는 과정(김덕현, 1991), 산업구조 변화가 지역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최병두, 1990)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 극복이라는 과제가 수행 불가능한 것임이 명백해진 90년대 중반 이후, 영어권에서나 한국에서나 좀 더 구체적인 현실 비판과, 실현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신지역주의'라는 레이블 안에 놓을 수 있는 여러 이론들이다. 영어권에서 신지역주의 이론적 논의를 주도한 학자들은 대부분 이전 시기에 마르크스주의적 경향을 가졌던 사람들로, 이에 따라 신지역주의도 초기의 논의는 Storper and Walker (19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기보다는 신شم페터주의, 제도주의 등 다양한 경제이론 사조들을 도입하여 융합, 보완하는 형태였다. 특히 Michael Dunford(1990) 등에서 볼 수 있듯,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유파였던 조절이론과 연결하여, 신산업지구를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인 포스트포디스트 시대의 특성인 것으로 간주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캘리포니아학파(Scott and Storper, 1987; Scott, 1986; 1988), 영국제도학파(Amin and Thrift, 1994), 프랑스 그레노블학파(Camagni, 1991), 지역혁신체제론(Cooke, Uranga, and Etxebarria, 1998) 등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나름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 간의 차이는 강조점의 차이일 뿐, 신지역주의의 공통점을 벗어난 것은 아닌 듯

하다. 이들은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진보진영의 강조점이던 평등을 위한 국가개입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국에서의 진보적 지역발전론에 큰 영향을 미친 캘리포니아학파의 경우, 지역에 기반한 시민사회를 국가개입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예를 들어 Storper, 1997).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클러스터 사례연구에 치중하게 되면서, 신지역주의의 진보적 성향은 참여 학자들의 정서에만 남아 있고, 그들의 이론에서는 흔적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신지역주의와 전통적인 진보적 지역개발론의 공통점을 굳이 찾고자 한다면 내생적 발전 지향성이다. 과거부터 진보진영에서는 지역 외부의 자본이 지역 주민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경계해 왔기 때문에, 지역 내부의 자원과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내생적 발전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경향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가 보기에는 마르크스 시대에 목가적 공동체로의 회귀를 꿈꾸던 공상적 사회주의와 공통점이 있어, 미래가 아닌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 비판할 여지가 있다. 신지역주의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산업이었던 ICT 등과, 구산업의 혁신화를 주장하였으므로 '목가적'이라는 비판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마르크스가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던 흐름들도 신기술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도시의 소규모 공장을 탈피하여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형 공장을 지으려는 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방식의 조직기술/입지전략이었고, 좌파적이라고 보기 힘든 기업들도 종종 선택하는 전략이었다(Hall, 2014). 마르크스가 그들을 비판한 것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모델이 계급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만들어 존재하는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호혜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공상적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마르크스의 비판에 수긍한다면, 시민사회 기반의 내생적 발전을 주창한 신지역주의도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지향하고 있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신지역주의자들이 초기에 이상으로 삼았던 제3이태리가 사실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 하청업체 착취, 소기업주들과 그 가족의 엄청난 노동시간, 그리고 더 열악한 지역

노동자들의 현실 등을 좀 더 정통 진보주의에 가까운 Harrison(1997) 등이 지적했음에도 신지역주의자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실리콘밸리의 호혜적 기업관계라는 환상을 만들어 낸 Annalee Saxanian(1996)의 연구가 치명적인 방법론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점, 지역혁신체제론의 근거가 되었다고 믿었던 웨일즈가 사실은 전혀 지역발전의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었다는 사실 등이 나중에 모두 지적되었지만, 이런 오류들이 쟁점이 되기보다는 신지역주의의 반성 없는 퇴조와 함께 묻히고 말았다.

영미권에서 신지역주의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동안, 한국의 비판적 지역 연구자들도 신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당시 지리학자들, 지역계획 학자들이 신지역주의를 흔히 인용했지만 체계적으로 수입, 논의하여 한국 사례에 적용한 논문들을 꾸준히 발간한 것은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원들이었던 듯하다(강현수, 2006; 권오혁, 2004; 박경 외, 2000). 사실 공간환경학회는 신지역주의 이론 수입과 적용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할 수 있었다. 한국의 지역개발 논의가 사회과학적 이론에 기반하지 않고 진행된 경우가 많았고, 초기 신지역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좌파적 배경과 용어들을 당시 주류 경제지리학자들이나 지역개발학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간환경학회는 그 특성상 각종 사회과학 이론들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았고, 마르크스주의 논의에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각종 신지역주의 이론들 중에서 지역혁신체제론은 한국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따로 좀 더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지역혁신체제론의 수용은 당시 한국에서 진보진영 내에서 신습페터주의의 영향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경제성장, 국가-대자본 동맹에 의해 주도되는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 경제성장보다 진보적이라는 진보진영 일부의 믿음(예를 들어 김환석, 1993)과도 연결되어 있었던 듯하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진보적 사회과학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 다수였다. GDP등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각종 수치들을 부정하고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보는 경향이 진보진영에 폭넓게 존재했고, 그런 경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민족경

제론, 종속이론, 식민지반자본주의론 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고, 동시에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을 겪게 되니 90년대 중후반 진보학계 전반에 정치경제학 연구를 버리고 인터넷민주주의, 진보적문화이론 등을 연구하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인데, 이때 국가경제에 대한 연구를 버리지 않은 소수가 대안을 모색하다가 찾아낸 것 중 하나가 기술혁신이었던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지역개발이론으로서 지역혁신체제론이 소개되고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역혁신체제론은 다른 신지역주의 이론들보다 진보적 색채가 더 약하다. 경제적 불평등이나 권력관계보다는 효율적으로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지역경제구조, 지역 거버넌스 등이 주요 연구주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간환경학회를 포함한 한국의 진보적 지역개발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앞서 언급했던 지역혁신체제 옹호경향과, 비판경향(예를 들어 이용숙, 2003; 조명래, 2000)이 공존하게 된다. 결국 영어권에서나 한국에서나, 지역경제 연구에서 진보적 이론은 약해지고, 연구자들은 새로운 진보적인 연구거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 2. 현재: 진보적 이론의 부재

2000년대 이후, 특히 심정적으로라도 진보적이었던 신지역주의의 영향조차 거의 끝난 2010년대 이후의 지역경제 연구에서, 진보적 연구의 경향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는 신지역주의의 이론적 내파의 결과이기도 하겠으나, 진보적 지역경제론에 이론적 자양분을 제공하던 다른 분과학문들에서 이론적 활기가 약해진 것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경제학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더더욱 퇴조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비주류경제학들이 이단(heterodoxy) 경제학이라는 타이틀 안에 연합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등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진보적 이론들이 잠시 관심을 받

을 뿐 오랫동안 이론적 성과를 쌓아갈 수 있는 큰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90년대에 이론적으로 활발했던 경제지리학도 진보적인 이론을 제공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 혁신 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등 신지역주의에서 연구주제로 삼았던 연구주제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신지역주의에 남아 있는 진보적인 이론의 색채는 완전히 잃고 경험적 사실에서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들만이 남았다. 클러스터의 생애주기에 관한 연구들,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요건에 대한 연구들이 좋은 예이다. 그나마 신지역주의의 이론적 유산을 가장 많이 계승한 것은 창조도시론(Florida, 2002)인 듯하다. 창조도시론은 ①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본 점, ② 새로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아니라 창조적 능력이 중요하므로, 창조계급은 기존 자본주의 노동계급의 탈속련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본 점, ③ 창조계급의 확보가 지역경제 성장의 관건이라고 본 점 등에서 신지역주의적 사고와 매우 유사하므로, 신지역주의의 한 유파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Chen and Sonn, 2019; Sonn, Hess and Wang, 2019). 후에 여러 논자들이 창조도시 개념을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하여, 이제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수없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지만,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가 창조도시론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론이 되게 만들었을 당시의 논의를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리처드 플로리다 또한 대부분의 신지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저작들을 보면 진보 성향이 뚜렷하고, 창조도시론에서도 다양성의 이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진보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창조도시론이 보수적 정치 리더들이 자신들의 혁신성을 보여주는 데 쓰이거나,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대규모 주거개발과 상업개발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유되었다는 점은 안타까우나, Markusen(2006)이 지적하듯 창조도시론이라는 이론 자체가 출발부터 부실한 경험연구에 기인하고 있었고,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기반하여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보수적 전유의 가능성이 이론에 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Peck, 2005).

최근 경제지리학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론으로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

론(Coe and Yeung, 2015), 관계적(relational) 경제지리학, 진화주의적 경제지리학(Frenken, Van Oort, and Verburg, 2007; Boschma Frenken, 2006; Boschma, and Frenken :2018). 정도를 꼽을 수 있겠다. 이 논의들을 주도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신지역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젊은 시절을 보냈고, 개인 정치성향도 진보적인 듯하다. 그러나 이들 이론에서 정치적·경제적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을 분석하는 진보적 경향을 찾기는 힘들다. 물론 이런 전체적인 경향을 거슬러 본격적인 정치경제학적 지역경제 연구를 주창하는 학자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Pike, 2022; Sheppard, 2018). 그러나 이들은 수적으로도 크게 많지가 않고, 이론적 기여도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젠더 문제, 환경 문제, 지정학적 변화 등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은 문제들을 지역경제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이를 실제 연구로 내놓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Sonn and Hsu, 2022).

이런 국제적인 경향은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비판적인 공간연구자 그룹 안에서 지역경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기존 지역경제 연구자들도 주택, 도시정치, 거버넌스 등 관련 분야 다른 연구주제들에 천착하게 됨에 따라 주제로서의 지역경제가 덜 다뤄지게 되었고, 젊은 세대 진보 학자들은 지역경제 연구를 전문 분야로 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 3. 미래?

영어권의 지역경제 연구는 경제학, 경제지리학, 경제사회학 등에서 유입되는 이론들에 의존하여 전개되었는데, 이런 영어권 지역경제 연구에 크게 의존하여 발전한 것이 한국의 지역경제 연구였다. 앞서 쓴 바와 같이 영어권에서의 비판적 경제학이나 비판적 경제지리학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므로, 이론을 수입하여 한국의 지역연구에 적용하는 형태의 연구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한국의 지역경제연구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

회일 수 있다.

영어권의 논의가 활발할 때는 쏟아져 들어오는 이론들을 학습하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벅차다. 그렇다고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논의들을 무시할 수도 없다. 또한 연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판적 지역연구자들 사이에서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이론적 흐름만 읽고 따라가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영어권 학파의 숨겨진 일원이 될 뿐, 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소통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긴다. 반면에 지금처럼 영어권의 논의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좀 더 차분하게 한국의 연구자들끼리 소통하면서 한국의 비판적 지역경제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비판적 지역연구자들이 다들 만한 연구주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으니, 영어권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연구를 못 할 이유는 없다. 좀 더 발전된 논의를 위해 두 가지 관점의 변화를 제안한다.

첫째로 지역균형을 주장하는 연구가 무조건 진보적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진보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균형 정책이 진보적이 되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역균형은 자유, 평등, 인권 등과 같은 최상위의 가치가 아니므로, 그런 최상위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균형 정책이 지역균형 효과조차 없지만) 지역균형 효과가 있다고 해도, 그 정책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세가 진보적인 지역연구자의 임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지역의 규모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지역경제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을 연구의 단위로 놓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단위는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생산되고 변형된다는 점을 진보적 지역연구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지역발전, 지역불균형 관련 경험연구를 할 때는 행정구역 단위로 연구를 하고, 정책 대안을 내놓을 때도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놓는다. 이는 공간의 사회적 구성, 혹은 사회적 생산이라고 하는, 진보적 지역연구자들이 거의 전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리(distance)의 사회경제적 의미가 기술의 변화와 경제의 변화에 의해 계속 변화한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지역 간 통근을 가능케 하는 각종 교통수단들이 계속 발전되어 왔고, 수도권 주택 가격이 최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은 당분간은 변치 않을 듯하며, 코로나 이후 북미, 유럽, 일본 등 고소득 국가 전체에서 폭증한 재택근무(Lim et al., 2023)가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편에서는 다수의 중소 규모 고용 중심지들이 수도권 내에서 발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도심, 강남, 영등포를 향한 통근 거리가 길어지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 단위도 이전보다 훨씬 크게 잡아야 의미 있는 단위가 될 수 있고, 그런 새로운 지역의 단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수도권보다도 더 큰 초거대 도시 지역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단위가 어떤 식으로 생산되는지, 그에 따라 지역경제의 경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광역단체 간 소득수준 차이 변화보다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훨씬 중요한 연구방향이라 본다.

그리고 이런 큰 관점의 변화 없이도 당장 선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지역경제 연구주제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재생산 과정의 젠더적 특성도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자본주의 재생산이 젠더적 과정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재생산에서 성별분업의 양태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경험연구가 충분치는 않은 것 같다. 또 교통의 효과에 관한 연구도 비판적 지역경제 연구자들이 해볼 만하다. 전통적으로 교통은 매우 전문화된 연구영역으로 간주되어, 교통전문가들이 그들만의 연구방법론으로 연구해 왔다. 그러나 교통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며,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도 매우 크다. 따라서 비판적인 사회이론과 연결시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리라 본다.

원고접수일: 2024.03.04.

최종원고접수일: 2024.03.15.

**Abstract**

**Progressive research in regional development: Past, present and future**

Jung Won SONN

The dominance of new regionalist economic geographers in leading progressive regional economic research waned around 2010, marking a noticeable hiatus in progressive theoretical advancements within Anglophone academia. This change implie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South Korean progressive regionalists: the conventional approach of adapting and applying Anglophone theories to Korean contexts is no longer tenable. Yet, this challenge present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advancement of regional economic studies in South Korea. The reduced workload on deciphering and integrating Anglophone theories allows for more focused, internal dialogues among South Korean scholars. This environment is conducive to developing innovative, progressive regional theories that are deeply rooted in the empirical realities of Korea's regional economies. To realise this potential, a critical reassessment of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previously embraced by progressive regional researchers is needed.

**Keywords: theories in regional development, critical regional studies, economic geography, theorization**

## 참고문헌

- 강현수. 1991. 「공간적 분업과 지역 불균등발전」. 《공간과 사회》, 제1권 1호, 104~137쪽.  
<http://dx.doi.org/10.19097/kaser.1991.1.1.104>
- \_\_\_\_\_. 2000. 「지역경쟁력의 원천인 지역혁신체제」. 《자치발전》, 제60권 4호, 74~83쪽.
- \_\_\_\_\_. 2006.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덕연구단지과 유럽 경험의 비교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108~123쪽
- 권오혁. 2004. 「지역혁신체제론의 이론적 전개와 정책적 함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응용경제》 제6권 제2호, 5~26쪽.
- 김덕현. 1991. 「지역불균등발전의 정치경제학」. 《공간과 사회》, 제1권1호, 56~77쪽. <http://dx.doi.org/10.19097/kaser.1991.1.1.56>
- 김왕배. 1991. 「자본축적과 지역불균등발전: 국가와 계급 독점자본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1권 1호, 78~103쪽. <http://dx.doi.org/10.19097/kaser.1991.1.1.78>
- 김환석. 1993. 「신기술경제 패러다임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경제와 사회》, 제20호, 113~140쪽.
- 박경·박진도·강용찬. 2000. 「지역혁신 능력과 지역혁신체제」. 《공간과 사회》, 제13호, 12~45쪽
- 변창흠. 1991. 「하청제의 불균등 공간구조」. 《공간과 사회》, 제1권 1호, 138~171쪽. <http://dx.doi.org/10.19097/kaser.1991.1.1.138>
- \_\_\_\_\_. 2000.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분포특성 및 지역개발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정원. 1998. 「지역혁신체제 최적화전략: 포스트푸드주의 지역개발을 향하여」. 한국공간환경학회 엮음. 『현대도시이론의 전환』. 한울엠플러스(주).
- 이용숙. 2003. 「지역혁신체제론의 비판적 재검토: 무엇을, 누구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인가?」 《동향과 전망》, 제59호, 141~182쪽.
- 조명래. 2000. 「지역정치경제연구의 이론적 동향과 쟁점」. 《공간과 사회》, 제14호, 156~185쪽
- 최병두. 1990. 「경제구조의 개편과 지역불균등발전」. 《사회와 사상》, 제24호, 284~302쪽.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엮음. 1994. 『지역불균형 연구』. 한울엠플러스(주).
- Amin, Ash, and Thrift, Nigel J. 1994. "Globalization, institutional thickness and local prospects." *Revue d'Economie regionale et Urbaine*, No.3, pp.405~427.
- Boschma, R. A., and Frenken, K. 2006. "Why is economic geography not an evolutionary science? Towards an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6, No.3, pp.273~302. <https://doi.org/10.1093/jeg/lbi022>
- Boschma, R., and Frenken, K. 2018.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The new*

-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pp.213~229.
- Camagni, R. 1991. *Innovation Networks: Spatial Perspectives*. Belhaven-Pinter.
- Chen, K. W., and Sonn, J. W. 2019. "Contingent proletarianization of creative labor: Deskilling in the Xianyou classical furniture cluster." *Geoforum*, No.99, pp.248~256. <https://doi.org/10.1016/j.geoforum.2017.11.008>
- Coe, N. M., and Yeung, H. W. C. 2015. *Global Production Networks: Theorizing Economic Development in an Interconnected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 Cooke, P., Uranga, M. G., and Etxebarria, G. 1998.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0, No.9, pp.1563~1584.
- Dunford, M. 1990. "Theories of regul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8, No.3, pp.297~321.
- Florida, R. 2002. "Bohemia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2: pp.55~71, <https://doi.org/10.1093/jeg/2.1.55>
- Frenken, K., Van Oort, F., and Verburg, T. 2007. "Related variety, unrelated variet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Regional Studies*, Vol.41, No.5, pp.685~697
- Hall, P. 2014. *Cities of tomorrow: An intellectual history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since 1880*. John Wiley & Sons.
- Harrison, B. 1997. *Lean and mean: The changing landscape of corporate power in the age of flexibility*. Guilford Press.
- Lim, J., Kang, E., Lim, H., and Sonn, J. W. 2023. "Rise of work from home: Post-pandemic urban form in global citie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Vol.58, No. 5, pp.5~26. <https://doi.org/10.17208/jkpa.2023.10.58.5.5>
- Markusen. A. 2006. "Urban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the creative class: evidence from a study of artis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8, No.10, pp.1921~1940. doi: <https://doi.org/10.1068/a38179>.
- Peck, Jamie 2005.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Wiley, Vol.29, No.4, pp.740~770. <https://doi.org/10.1111/j.1468-2427.2005.00620.x>
- Pike, A. 2022. "Coping with Deindustrialization in the Global North and S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Vol.26, No.1, pp.1~22. <https://doi.org/10.1080/12265934.2020.1730225>
- Saxenian, AnnaLee. 1996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Harvard University Press

- Scott, A. 1986. "Industrial organisation and location: division of labour, the firm, and spatial process." *Economic Geography*, Vol.62, No.3, pp.215~231.
- Scott, Allen. 1988. *New Industrial Spaces*. Pion.
- Scott A. J. and Storper M. 1987. "High technology industry and regional-development - a theoretical critique and reconstruc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No.39, pp.215~232.
- Sheppard, E. 2018. "Heterodoxy as orthodoxy: Prolegomenon for a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The New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 Sonn, J. W., Hess, M., and Wang, H. 2019. "Spaces for creativity? Skills and deskilling in cultural and high-tech industries." *Geoforum*, No.99, pp.223~226.
- Sonn, J. W., & Hsu, L.-F. 2022. "Geopolitics and economic geography: a commentary on Andy Pike's geographic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Vol.26, No.1, pp.36~44. <https://doi.org/10.1080/12265934.2020.1828148>
- Storper, M. 1997. *The regional world: territorial development in a global economy*. Guilford
- Storper, M, and Walker, R. 1989. *The Capitalist Imperative: Territory, Technology and Industrial Growth*. Basil Blackwell